

##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항콜린성 약물 복용 중 발생한 만성신부전 1례

샘안양병원 신장내과

이지연 · 이원준 · 박상은 · 임병국

### A Case of Chronic Renal Failure in Schizophrenia Taking Anticholinergic Drug

Ji-Yeon Lee, Won-Jun Lee, Sang-Eun Park, Byoungkook Im

Department of Nephrology, Sam Anyang Hospital

**서론** : 항콜린성 약물이 방광이완증, 수신증 등과 같은 요로계 이상을 유발한 예는 보고된 바 있으나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었다는 보고는 거의 없다. 저자들은 정신분열증으로 항콜린성 약물을 복용 중 해부학적 이상 없이 기능적 요로폐색에 의해 진행된 만성신부전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**증례** : 32세 남자 환자가 전신쇠약과 배뇨곤란을 주소로 개인의를 방문하여,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양측의 수신증과 방광 팽창이 관찰되어 전원 되었다. 혈액 검사에서 BUN/Cr 51/4.4 mg/dL, Na<sup>+</sup> 111 mmol/L, K<sup>+</sup> 4.0 mmol/L, Hb 9.9 g/dl, Hct 29.7%로 만성신부전에 합병된 급성신부전과 저나트륨혈증으로 추정진단 하였다. 과거력에서 13년 전 정신분열증을 진단받고 항콜린성 약물인 Beztropine 1 mg을 포함하여 trifluoperazine 25 mg, chlorpromazine 200 mg을 복용 중이었고, 평소 수분 섭취량이 많았다고 하였다. 환자는 전해질 교정 및 기능적 요로폐색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면서 경과 관찰 중 신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일과성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, 향후 영구적인 신대체요법을 준비하고 있다.

**결론** : 정신분열증으로 항콜린성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방광이완증과 같은 기능적 요로폐색이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수분 섭취와 배뇨 상태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.